

컨테이너 전복 불산 40리터 유출

시흥, 드럼통 파손으로 희석액 흘러나와 ... 도로출입 통제에 주민대피

5월18일 오전 8시42분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무진아파트 앞 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가 넘어져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40여리터(소방서 추산)가 유출됐다.



유출된 불산은 55% 농도의 희석액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왕복 6차로 도로 가운데 3차로 30여평방미터가 불산으로 젖었다.

경찰 조사결과 화물차 운전자 조모(45)씨가 시화공단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컨테이너가 좌측으로 넘어져 드럼통이 파손되면서 불산이 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로 8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컨테이너에는 200리터(235kg)짜리 드럼통 80여개에 불산 18.8톤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다행히 파손된 드럼통 수가 적고 파손부위가 작아 유출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산이 유출된 도로 인근의 출입을 통제하고 중화작업을 벌였으며, 무진아파트 주민을 정왕동 사회복지관과 환경관리센터 등으로 대피시키고 인근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라고 안내했다. 사고가 난 도로 주변의 상가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

환경부가 사고현장과 인접한 무진아파트 1개 동 입구와 내부, 옥상 3곳에서 오전 11시40분부터 20분간 실시한 불산 검지관 측정결과 공기 중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넘어진 컨테이너를 바로 세우고 컨테이너가 화물차에 제대로 고정돼 있었는지, 운전자가 과속하지는 않았는지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20>